

이슈 파헤치



### “과학수사의 승리”...남편 살해혐의 부인 40대女 ‘징역 15년’

재판부, 국과수 부검결과 등 증거 채택...“엄중 처벌 불가피”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었다고 주장하다가 2년만에 살인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표극창)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혈중알콜농도 0.16%

있던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을 찔렀다고 볼 수 없고, 흉기에 찔린 부위의 위치나 각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또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 둘이 있었고 피고인의 왼쪽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다는 현장 소방대원의 증언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정황 상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

않고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가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 후 뒤늦게나마 119에 신고하고 구조하려고 했던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수사 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2년만에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서도 남편을 칼로 찌른 사실이 없고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토대로 A씨가 남편을 찔렀다고 보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5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시 남동구 서창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 B씨(46)의 왼쪽 옆구리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하고) 허벅지를 찌르고, 흘린 피에 미끄러져 바닥에 있던 흉기에 찔려 숨졌다”고 진술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타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2년만에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 ‘비상저감조치 5등급차’ 단속 6시간 만에 4530대 적발

서울시, 올 겨울 첫 미세먼지 저감조치...1만12대 통행

최초 적발 지점서 1일 1회 한해 과태료 10만원 부과돼

서울시에 올 겨울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10일,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 6시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 4530대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이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오전 6시부터 시내를 주행하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다.

앞서 올 3월 비상저감조치 때는

서울시만 시내에서 운행하는 총 중량 2.5톤 이상 수도권 등록 5등급 차량을 단속했다. 그러나 이후 각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고 운행제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는 서울·경기·인천이 함께 총 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다만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했거나 미세먼지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한 긴급차량, 장애인차

량, 국가유공자, 생업용 차량 등은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시내 5등급 차량 전체 통행량은 1만 12대를 나타냈다. 이 가운데 과태료 부과대상인 저감장치 미부착 5등급 차량은 4530대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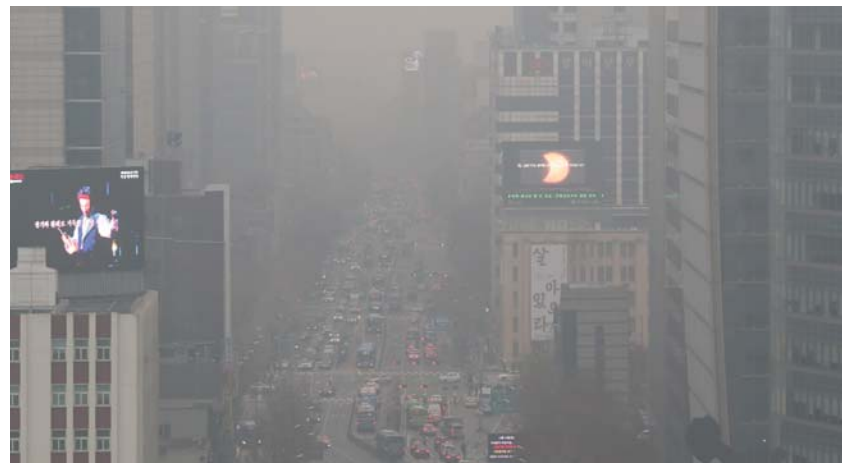
과태료 부과 차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 등록차량이 2041대(20.4%)로 가장 많았고, 서울 등록 차량은 1110대(11.1%), 인

전은 271대(2.7%)로 집계됐다. 수도권 이외지역 등록차량은 1108대(11.1%)였다.

이번에 적발된 차량은 수도권 중 최초 적발 지점에서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일 1회에 한해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이번 단속은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1일부터 시작된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과는 법적 근거가 다르다. 녹색교통지역 단속은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에 근거해 적발 시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또 녹색교통지역 단속은 저공해 조치를 신청했거나 저감장치 미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도심이 뿌연다.

발 차량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단속을 유예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 전남소방본부, 내년 2월까지 겨울 소방환경 실태 점검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과 소방 관계자들이 9일 광양제철소를 찾아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전남소방본부는 겨울철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국가 중요시설과

지 소방환경 실태점검을 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에는 마 본부장을 비롯한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찾아 소방시설 및 방재 시스템 구축 상태 등을 점검하고 안전관리 책임자 등과 간담회를 통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 등 안전 책임의식 제고를 당부했다.

마재운 전남소방본부장은 “국가 중요시설은 화재 발생시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주기적인 자체 소방시설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 “자위소방대 훈련 등 평소 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유 인력들을 활용해 화재 예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초등학생 장래희망, 의사 보다 ‘유튜버’

초등-운동선수·중고생-교사 각 1위...고교생 35% “중소 관심”

중·고등학생 희망직업으로 교사가 1위를 차지했다. 고등학생들의 10명중 3명은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을 보였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2019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현황조사는 지난 6월18일부터 7월2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초·중·고 1200교의 학생, 학부모, 교원 등 총 4만4078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들은 지난

6.9%로 뒤를 이었고 ‘유튜버’로 대표되는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초등학생들도 5.7%를 차지해 의사(5.6%)보다 다소 많았다. 이어 조리사(요리사)가 4.1%로 5위를 차지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교사를 가장 희망하는 직업으로 꼽았다. 교사는 교육부와 직원이 진로 교육 현황조사를 처음 실시한 2007년부터 올해까지 중·고생 희망직업 부동의 1위다.

중학생은 10.9%가 교사를 희망직업으로 꼽았고 이어 △의사 4.9% △경찰관(4.9%) △운동

선수(4.3%) △뷰티디자이너(3.2%) 순으로 조사됐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사(7.4%)에 이어 △경찰관(3.8%) △간호사(3.7%) △컴퓨터공학자·소프트웨어개발자(3.6%) △군인(2.9%)이 5위권을 차지했다.

올해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새로 설문한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에서는 고교생 35.1%가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이 있는 것(관심이 있음·매우 관심이 있음)으로 응답했다. 중소기업 취업에 관심을 보인 이유로는 ‘경력 쌓아 더 좋은 직장으로 가기 위해’로 응답한 비율이 37.0%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한 비율은 33.8%로 나타났다.

#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알려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폐 조기 발견, 자폐치료 중인 민척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기관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